

민사소송법

2013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업무용 빌딩인 A건물의 각 사무실을 乙, 丙, 丁에게 임대하였다. 乙과는 2010년 3월 2일, 丙과는 2010년 9월 1일, 丁과는 2011년 2월 1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 丙, 丁 모두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자 甲은 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甲은 乙, 丙, 丁으로부터 각 사무실의 인도(引渡)를 받고자 한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아래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하다) (총 50점)

(1) 甲은 乙, 丙, 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각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법원이 甲의 乙, 丙, 丁에 대한 각 청구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10점)

2) 소송계속 중 乙만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甲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丙과 丁은 변론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乙의 이 주장은 丙과 丁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20점)

(2) 甲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乙의 주소지는 수원시, 丙의 주소지는 인천시, 丁의 주소지는 대전시, A건물의 소재지는 청주시이다. 甲은 乙, 丙, 丁을 공동 피고로 하여 각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였지만, 丁은 甲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만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의 乙, 丙, 丁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20점)

제 2 문. 甲은 乙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였으나 乙이 매매대금으로 7,0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3,000만원의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에서 위 계약의 매매대금은 7,000만원이므로 대금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다투었다. 甲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X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乙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총 25점)

(1) 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점)

(2) 만일 乙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점)

제 3 문. 甲은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乙의 과실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신체감정을 하였던 바, 甲의 여명은 감정일로부터 향후 4년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1일 24시간 간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일로부터 4년 동안의 향후 치료비와 간호비 손해로 매월 6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정기금지급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어 甲은 정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 후에도 甲이 계속 생존하자 甲의 법정대리인은 乙을 상대로 향후 치료비 및 간호비 손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소의 정기금지급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25점)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

